**선한목자어머니 마리아 9일기도**

**선한목자예수수녀회- 빠스또렐레**

**2018년 8월 25일-9월 2일**



**“마리아와 함께 ...**

**고통 받는 인류와 만남으로”**

**전체 도입**

시대의 예언자인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하느님과 함께 성령의 빛으로 역사를 마음 깊이 관상하면서 시대의 징표를 발견하고 인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할 긴급함을 느꼈다. 이 9일기도는 더 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반하시는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성으로 동반 받으며, 매일 이 세상에서 더 고통 받는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영적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같이 영혼들의 어머니로서” 기도하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하루가 지속적인 사도직이 되도록 초대한다.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취약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거기에서 당장 실질적인 이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고통 받는 그리스도를 알아 뵙도록 부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노숙자, 중독자, 난민, 토착민, 점점 더 소외되고 버림받는 노인들과 그 밖의 많은 이를 생각합니다. 이민은 제게 특별한 과제를 줍니다. 저는, 스스로 모든 이의 어머니로 여기는 국경 없는 교회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기쁨, 210)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귀 여겨 듣지 않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지내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풍요로운 열매 없이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프란체스코 교황,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에게, 2015년, 볼리비아의 산타 크루즈에서)

우리 설립자의 기도는 우리 삶과 사목 사명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굶주린 이들에게 빵을, 억압받는 이들에게 정의를, 난민과 망명자에게 조국을, 집이 없는 이에게는 기거할 집을, 감옥에 갇힌 이 들에게는 정당한 자유를, 신체적으로 혹은 영혼의 소경에게 내적 빛의 기쁨을, 영혼들의 일치를, 진리와 선에 기초한 교회의 기쁨과 자유를 청합시다.” 어머니께 기도합시다! (PrP VI, p. 178)

**제 1일: 8월 25일 토요일**

**이주민과 난민들과 함께 순례하는 마리아**

**도입**

세상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대단위의 이동을 보이고 있다. 세상 곳곳에서 선례 없이 6백5십6만명의 사람들이 폭력과 분쟁과 가난으로 자신들의 집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그들 중에서 2백2십오만명은 난민으로, 이들 중 반은 18세 미만이다. 뿐만 아니라 국적을 포기하여 조국이 없고, 교육과 건강과 일 그리고 통행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이 10만이 넘는다. (유엔 보고서)

**시작기도**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모성적 중재에 세상의 모든 이민자들과 난민들의 희망과, 이들을 받아들이는 공동체의 열망을 맡겨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이웃을 향한 애덕과 사랑의 숭고한 거룩한 계명에 합당하도록 타인과 이방인을 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프란체스코 교황, 세계 이민자와 난민의 날 강론, 2018년 1월 14일)

**성령청원 기도**

**성경 독서**

“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마태 2, 13-15)

“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다.” (레위 19,34).

마리아께서는 헤로데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하여 찾을 때 박해 받고, 순례하며, 추방당하심으로 모든 헐벗은 이들과 이주민들과 난민들의 어머니요 모델이 되신다. 성가정은 무겁게 발걸음을 떼는 이들을 고무하는 모델로 여겨진다. 이집트로 피신하는 마리아 안에서 거부 당하고 내쫓기고 이해 받지 못하는 모든 이들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 있다.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마음이 넓고 모든 이들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마태 11,28)’ 축복이 전 인류에게 내리기를 빕니다. 모든 종족의 사람들과 모든 가족 그리고 모든 개개인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성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을 포기하였다 하여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머니입니다. ”

**프란체스코 교황**

“누가 이 형제 자매들의 죽음을 위하여 울어주었습니까? 배 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위하여 누가 울어주었습니까?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던 젊은 어머니들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들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원하던 이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고통을 겪어주는’ 울음을 그쳐버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는 울줄 아는 능력을 빼앗아 갔습니다!”

(람뻬두사에서 강론, 2013년 7월 8일, 이탈리아)

* 박해와 소외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폭력 혹은 가난으로 조국을 포기하여야 하는 이들, 그리고 **“모두 나에게 오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도록 본문을 다시 읽는다.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들과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계시하시는** **예수님의 눈길과 요청에 나를 맡기자**.

(개인 숙고)

(자유기도)

**프란체스코 교황의 기도 – 2013년 7월 8일 람뻬두사**

오 바다의 별이신 마리아님, 피난처와 평온함을 찾고, 보호와 구원을 청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당신께 달려듭니다.

이민자들과 순례자들의 보호자시여, 미래와 희망을 찾으러 자신들의 땅에서 도망칠 수 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성적인 돌봄으로 도와 주소서.

저희와 만남이 생각지 못한 더 무거운 종살이와 굴욕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비의 어머니, 이기주의로 눈멀고, 저희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버린 저희들, 형제들의 필요와 고통에 마음이 산란해지는 저희를 용서해 주소서.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전쟁과 미움과 가난을 만들어내고, 형제들과 그들의 나약함을 이용하며, 인간 생명의 가치를 저해하는 사업을 하는 이들의 마음을 회개시켜 주소서.

애덕의 모델이시여, 이 땅에 도착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받아서 내어주는 사랑이 형제들에게 새로운 연대의 씨앗이 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마련하는 서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2일: 8월 26일 주일**

**인신매매로 고통 받는 이들의 어머니 마리아**

**도입**

인신매매는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남성들을 수많은 목적으로, 심지어는 강제 노동과 성까지 착취하는 범죄다. 국제 노동 기구는 세계에서 거의 2 천 백만 명이 강제 노동의 희생자라고 추정한다. 이 수치는 노동과 성 착취 매매의 희생자까지 포함한다. 이들 중 얼마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수치는 세상에 수 백만 명의 희생자가 있다는 현실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출신국이든 중계국 혹은 목적지든 모든 지역에 매매가 존재한다. 매매의 희생자들 중 약 30%는 남자 아이들이고 70%는 성인 여자들과 여아들이다. 인신 매매는 의심 없이 존재하는 범죄 중에 가장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서 존엄성과 권리를 빼앗아 노예 상태에 이르게까지 한다. 대부분의 경우 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당한다.

**시작 기도**

“바퀴타의 성녀 요셉피나님, 당신은 어려서 여종으로 팔렸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신은 노예에서 풀려났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남으로 참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퀴타의 성녀 요셉피나님, 노예로 갇혀 있는 모든 이들을 도와주소서.

그들의 이름으로 자비하신 하느님께 그들이 묶여 있는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소서.

하느님께서 직접 인신 매매와 인신 매매로 인해 위협당하고 고통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이 노예살이에서 살아 남은 이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시고, 그들이 믿음과 희망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치시어 그들의 상처를 치유 받게 해 주소서.

당신께 청하오니 저희 모두를 위하여 중재하시어 무관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을 열고 존엄성과 자유를 빼앗긴 많은 형제자매들의 비참함과 상처를 바라보고 그들이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소서. 아멘.” (‘제 4차 세계 인간 존재에 관한 기도와 숙고의 날’에 참석자들에게 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연설, 2018년 2월 12일)

**성령청원 기도**

**성경 독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19,25-27)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선한 빠스또렐레 수녀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소는 영웅적이기까지 할 정도로 희생도 감수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아래서 칼에 꿰 찔리는 고통을 겪으신 마리아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 고통스러워도 희생을 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모성도 영적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PrP V, p. 243)

**프란체스코 교황**

“온갖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 놓인 상황을 생각하면 저 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모두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창세4,9)고 물으시는 하느님의 외침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노예가 되어 버린 네 형제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불법 공장이나 매춘 조직에서, 구걸에 이용되는 어린이들 안에서, 불법 노동 착취를 당하는 이들 안에서, 네가 날마다 죽이고 있는 형제자매는 어디에 있느냐? 아무 일도 없는 척하지 맙시다. 생각보다 더 많은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는 모든 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도시에는 이 악명 높은 범죄망이 단단히 구축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편의로 침묵의 공모를 하여 이에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211)

*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노예살이로 고통 받는 형제들의 눈물을 새겨주시도록 개방하자.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동반할 수 있는가?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요, 저의 어머니 마리아님, 갈바리아에서 당신이 받으신 고통을 관상합니다. 거기서 당신의 아들은 양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고 그분의 양떼와 교회의 목자들을 당신 손에 맡기셨습니다. 당신은 믿는 모든 사람과 사제들을 맞아들이고자 마음을 여셨습니다.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2번)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3일: 8월 27일 월요일**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이자 보호자이신 마리아**

**도입**

가난은 우리 행성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전염병이다. 세상에는 14억의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약 9억의 인구들이 기아에 허덕이며 마실 물이 없고 기본적인 서비스, 즉 교육과 건강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8억 3600만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남성과 여성, 소년과 소녀들이 굶주림 혹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고, 배제와 차별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살며 '하류'로 간주되고, 수십 년 동안 피로 얼룩진 전투와 약한 휴전을 반복하는 전쟁의 산물인 잊혀진 갈등 속에 산다.

**시작기도**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를 일어서게 하시고 그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동시대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저희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어, 모든 백성들이 하나 되도록 그들의 희망을 되돌려 주시고 그들을 일으켜주소서.

가난한 이들, 겸손하고 단순한 이들의 어머니, 당신께서는 고통과 가난의 삶을 사셨고, 집 없는 밤을 지새우는 고통을 겪으셨으며, 가난한 이들과 잊혀진 이들의 어머니이시니,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위로하소서.

**성령청원 기도**

**성경 독서**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루가 2, 1-7)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청빈입니다. 아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틀레헴에서, 도시의 숙박업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도시에서 잘 머무를 수 있었으나 가난한 이들은 여관이 없었고, 환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불가피하게 머리 둘 곳이라도 찾아 나섰으며, 동물들이나 머물 수 있는 동굴, 자신의 소유가 아닌 누군가가 애덕으로 준 동굴을 찾았습니다. (그 동굴을 보자면, 아, 맨 땅만 보입니다. 바위만 보입니다.) 그리고 동정녀는 짚을 올려 놓은 구유에 예수님을 포로 싸서 뉘었습니다. 성 가정은 목자들이 봉헌한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날 애덕, 애덕으로 주어진 것으로 사셨습니다. ” (AAP, 1964, 765)

“(...) 겸손하게 가난한 이들을 찾으십시오, 작은 이들, 죄인들, 노인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이들 등을 찾으십시오. (AAP 1966, 75)

**프란체스코 교황**

“한편 우리는 가난한 이들에게 손을 벌리도록, 그들을 만나도록, 그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도록, 그들을 끌어 안도록, 고독의 고리를 깨는 사랑의 열기를 그들이 느끼게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벌린 그들의 손은 확실성과 편안함에서 벗어나고, 가난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 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구원하려 벌린 손은 복됩니다. 이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손입니다. 인류의 상처 위에 위로의 기름을 부으면서 문화와 종교와 민족의 모든 경계를 거두어 내는 손은 복됩니다. ‘만약’이라는 말 없이, ‘그러나’라는 말 없이, ‘글쎄’라는 말 없이 아무것도 되 받을 마음 없이 내민 손은 복됩니다. 형제들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게 하는 손입니다.”

(2017년 세계 가난한 이의 날, 3항5항)

*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형제들의 고통을 보여 달라고 성령께 맡겨드리며 본문을 다시 읽는다. **성령과 함께 나의 선호도,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을 대비해본다.**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무죄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회개시키며, 나약한 사람들을 굳세게 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주시며, 번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성인들이 많이 나게 하며, 사도들과 선한 목자들을 보내주소서. 당신의 자애로운 눈길을 저희에게 보내주소서. 인류가 당신 아닌 누구에게 희망을 두오리까.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5번)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4일: 8월 28일 화요일**

**박해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보호자이신 마리아**

**도입**

마치도 과거의 이야기처럼 보이나, 오늘도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사살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행히도 그 수는 작지 않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에 3066명이나 된다. 공정무역 시민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1년 사이에 놀라운 수치를 발표한다. 2017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매우 심해져 한 달에 322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총 50 개국에서 2 억 5 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적대감이나 차별에서부터 극심한 박해 또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하는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고통 받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의 3분의 1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www.romereports.com/2018/01/18](http://www.romereports.com/2018/01/18))

**시작 기도:**

우리의 어머니신 동정녀 마리아님, 당신께 특별한 지향을 맡겨드리려 당신께 왔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세계 곳곳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저희의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당신께 청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우리의 나약함 속에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을 견디어 나갈 필요한 힘을 그들에게 주시도록 중재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령청원**

**성경 독서**

”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루가 2,33-35)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사목적 열정의 협력자가 된다는 것은 마리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 용기 있게 악마와 싸워서 이기도록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일을 시작하기는 쉽지만 시작한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인내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강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치하고 용기를 갖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싸움을 걸어올 것 같으면 인내하십시오. 시작하는 것은 쉬우나 인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교리를 가르치러 갈 때 그 환경에 적응해야 하니 그 환경을 연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아이들에게, 어부에게, 농부에게 그리고 의회의 사람들에게 적응하셨습니다.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을 다룰 줄 아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강해지십시오, 성모님께서 당신을 위로할 것입니다.” (PrP VI 1953, pp. 73-74)

**프란체스코 교황**

“순교자들은 교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를 지지하는 이들입니다. 교회를 지지했고 오늘도 지지합니다. 초세기 보다 오늘 순교자들이 더 많습니다. 매스컴은 이를 말하지 않는데, 기사 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박해 받고, 모욕당하고 감옥에 갇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됩니다. 오늘날 단지 십자가를 걸고 다녔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 감옥에 갇힌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지주요 우리의 굴욕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여기고, 무엇인가가 부족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오늘 초세기보다 더 많은 수의 형제 자매들이 순교로 고통 받는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교황 강론, 성 마르타 성당에서, 2017년 1월 30일)

* +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연민이 가득한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청합시다. **가끔 현실에 육화되지 않은 신앙 생활을 하는 자신을 일깨워주시라고 성령께 맡깁시다.**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예수님과 당신의 양떼 중에 한 마리 양이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저는 길 잃은 양이오니 죄인들의 피난처시여, 저를 구하소서. 하늘 나라의 길을 찾고 있사오니 착한 의견의 어머니, 저를 비춰주소서. 저는 겁 많고 연약하오니 능하신 동정녀여, 저를 보호해 주시고, 상처를 낫게 해주소서. 당신 태중의 아들이신 성체 예수님으로 저를 양육하소서. 저는 목자 예수님과 당신을 사랑하는 한 마리 양이오니 선한 목자 마리아님, 항상 더 당신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당신들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에 저를 받으시어 양순하고 충실했던 양무리에 들게 하소서. (선한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3번)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5일: 8월 29일 수요일**

**태어나지 못한 어린이의 어머니 마리아**

**도입**

세상에서 약 4천6백만의 여성들이 인공유산을 자행하는데, 이중 78%는 개발도상국에 속하고 22%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다.

사실상 11%는 아프리카에, 58%는 아시아에서, 9%는 남미와 카리브에 사는 여성들이 임신중절로 고통을 겪는다. 유럽과 다른 선진국이 22%을 차지한다.

세계 인구 중 1년에 가임기 여성 1000명당 35명이 인공유산을 자행한다.

**시작 기도**

생명의 어머니, 임신 중에 있거나 태어나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태양을 입은 여인이신 어머니, 요한 묵시룩(12,1)에서 출산의 순간을 보여 주셨으니, 당신의 모성적 돌봄으로 위협당하는 모든 인간 존재를 당신의 품에 감싸주소서. 아멘

**성령청원**

**성경 독서**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기를 배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크고 붉은 용인데,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이었으며 일곱 머리에는 모두 작은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휩쓸어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여인이 해산하기만 하면 아이를 삼켜 버리려고, 이제 막 해산하려는 그 여인 앞에 지켜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사내아이는 쇠 지팡이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분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아이가 하느님께로, 그분의 어좌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여인은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거기에는 여인이 천이백육십 일 동안 보살핌을 받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처소가 있었습니다. “ (묵시 12,1-6)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마리아께서는 육화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말씀, 즉 육화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오 !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이셨고 구원된 영혼들의 어머니이시기도 했습니다. 수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사명과 말과 모범과 기도로 은총을 가져가는 영혼들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 자신의 말로 영혼들을 성화시키고 최후 심판의 날에 자신을 둘러싼 영혼들을 볼 것입니다. ”

(AAP 1957, 157)

**프란체스코 교황**

 “교회가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고자 하는 이 힘없는 이들 가운데는, 자신을 방어할 힘이 전혀 없고 무죄한 태아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태아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낙태를 부추기는 법을 통과시키는 등 태아의 인간 존엄성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태아를 다루려는 시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가끔 태아의 생명을 수호하려는 교회의 노력을 비웃으며 교회의 입장을 관념적이고 반계몽적이며 보수적이라고 비난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이러한 수호는 그 밖의 다른 모든 인권 수호와 밀접히 관련됩니다. 이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발달단계에서 언제나 신성불가침의 존재라는 확신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확신이 사라지면, 인권 수호를 위한 견실하고도 지속적인 토대도 없어져, 인간의 권리는 늘 권력자의 편의에 번번이 휘둘릴 것입니다. 이성만으로도 모든 인간 생명이 지닌 불가침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온갖 침해는 하느님의 응징을 초래하는 것이며, 그 개인의 창조주에 대한 범죄”입니다“. (복음의 기쁨, 213)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의 ‘생명 돕기 센터’에 편지, 1992년 5월 31일, 이태리 카사레 몬페라토**

“이태리의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린이로서, 태어나지 못한 어린이로서 다시 오시나, 당신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기를 사랑하도록 가르치기 위하여 베틀레헴에서 아기로 오십니다.

태어나지 못한 아기, 태아는 저와 당신처럼 위대한 일을 위해 사랑하고 사랑 받는 하느님의 모상이자 하느님을 닮은 인류의 살아있는 구성원입니다. 따라서 한번 임신된 아기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이미 다른 생명이, 다른 인간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낙태로 이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살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살인보다 더 나쁜 것입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이 참으로 살아나는 것은 어머니에게 달려 있으므로, 즉 저와 당신에게 달려 있으므로 인류 중 가장 약하고 가장 작으며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생명을 지키고 키워야 하는 어머니가 고의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기를 죽인다면 누가 그 아기를 보호하겠습니까?

이것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을 가난한 이들 중에 가장 가난한 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한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 있으면서, 자신의 살에서 나온 살, 자신의 생명에서 나온 생명, 그리고 자신의 사랑의 열매를 파괴할 수 있으면서, 우리 주위에 퍼져있는 폭력과 테러에 대하여는 왜 놀랍니까?

낙태는 오늘 세상에서 평화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한 저의 기도는 하느님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슴이 뛰어오르는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

* 성령께 **가장 취약하고 위협받는 곳의 생명을 수호하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청합시다.

(개인 숙고)

(자유 기도)

**기도**

모든 이의 수호자이자 어머니이신 사랑하는 거룩하신 어머니,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어린이들을 돌보소서.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태어나지 못한 자녀들을 위한 특별하고 관대한 사랑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모든 생명은 하느님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소서. 낙태를 허가하려는 정치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사랑스럽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하느님의 옥좌 앞에서 저희의 변호자가 되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6일: 8월 30일 목요일**

**원주민들의 수호자이신 어머니 마리아**

**도입**

원주민들과 세상의 다양한 지역 문화는 그들의 영토에 가까운 지역에서 삼림 벌채 및 천연 자원의 채취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긴 역사 속에서 시간에 따라 문화는 변화해 왔고 다른 문화들과 뒤섞여왔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고 다른 문화의 실종을 초래할 때 문제가 된다. 문화는 다른 문화에 강요하고 실종을 초래한다. 다양한 문화는 세계 유산으로, 세상에 있는 5천개 민족의 원주민에게 약 3억의 인구가 속하고 있는데, 이중 대다수가 이들 종족이 사는 가까운 곳에서 숲이나 산림 그리고 천연 자원의 착취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시작 기도**

저희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저희가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고 모든 사람 안에서 선하신 당신의 얼굴을 보도록 가르치려 오셨습니다. 자주 백성들은 다른 이들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고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의 정체성을 억압하고 멸시합니다. 정치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원주민들을 존중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청원**

**성경 독서**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은 자유인이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을 얻으려고 유다인들에게는 유다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율법 밖에 있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 밖에 있는 이들을 얻으려고 율법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약한 이들을 얻으려고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합니다.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1코린 9,19-23)

“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갈라 3, 27-28)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빠스또렐레들은 병자들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자신의 사도직을 하는 수녀의 현존은, 재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은,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영혼들의, 오직 영혼들의 어머니입니다. 거룩한 성모님께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들의 어머니들.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처럼 깨끗한 마음을 여러분 안에서 느끼십시오. (...) 십자가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으니 바로 그 영혼들의 어머니들임을 느끼십시오.”

(PrP VI, p. 109-110)

**프란체스코 교황**

“이러한 의미에서, 토착 공동체와 그들의 문화 전통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여러 소수 집단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주요 이해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 특히 그러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땅은 상품이 아니라 하느님과 그곳에 묻힌 조상들의 선물로, 그들의 정체성과 가치를 함양하고자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 머무를 때 그 땅을 가장 잘 돌봅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자연과 문화의 훼손을 도외시한 채 자행되는 광업, 농업, 축산업 개발 계획에 밀려 그들은 자신의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찬미 받으소서, 146)

* + 성령께 마음을 열고 이 원주민들과 함께 **사목하면서**, 그들의 공동체적이고 가족적인 가치들이 풍부한 삶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협력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도록 그들을 **동반할** 은총을 청합시다.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사랑하는 모든 종족의 어머니시여, 모든 백성들을 구분 없이 받아들이도록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많은 백성과 공동체들의 동반을 위해 당신께 의탁하오니, 저희의 형제들인 원주민들의 삶과 가족과 일을 축복하시고, 원주민들을 동반하고 도우며 보호하는 일을 지속하소서. 그들의 역사와 미래가 희망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서로 적대하지 않고 폭력 없이 정의와 연대에 있어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7일: 8월 31일 금요일**

**모든 피조물의 여왕이신 마리아**

**도입**

환경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위협당하였다. 국가들의 산업과 경제 발전은 지구의 생활 조건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오염은 인간 존재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식물들과 동물들에게도 해를 끼친다. 인간이 행하는 쓰레기의 축적과 연소와 에어로졸의 과도한 사용은 오염문제를 증가시킨다. **이 모든 것을 공기 오염이라 부른다.**

**물 속에는** 기름 유출과 독성 물질로 해양 생물의 실종을 초래한다.

**땅에는** 삼림 벌채와 침식과 쓰레기 축적으로 인해 가뭄과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기도**

땅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라.

땅에서 싹트는 것들아 모두 주님을 찬양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라.

하늘의 새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라.

들짐승과 집짐승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사람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고 드높이 찬양하여라. (다니3,74.76.78.80-82)

**성령청원**

**성경 독서**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으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 입지 못하였다. 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마태 6, 26-30)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의 얼굴이 자신의 이목구비 중 어느 부분을 닮았다면 감미로운 느낌을 느끼듯이, 우리의 사랑스러운 어머니 마리아께서도 외아들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녀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당신의 자세와 덕을 닮았다면, 그 이상의 바램도 기쁨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과 희망과 사랑에서 마리아를 닮으십시오. 정의와 사려 깊음과 강함과 절제에서 그분을 닮으십시오. 순명과 겸손과 인내에서 그분을 닮으십시오. 당신의 어머니를 닮으십시오.”

(PrP VI, 1953, p. 176-177)

**프란체스코 교황**

“예수님을 돌보신 성모 마리아께서 이제 이 상처 입은 세상을 모성애로 함께 아파하며 돌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꿰 찔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해하신 것처럼 핍박 받는 가난한 이들과 인간의 힘으로 황폐해진 이 세상의 피조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변모하신 성모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시고,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묵시12,1)여인이시며 **하늘로 들어 올려지시어 모든 피조물의 모후가 되십니다.** 영광스러운 몸이 되신 성모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며, 피조물이셨던 분으로서 그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전 생애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셨을 뿐만 아니라(루카2,19.51참조). 이제는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지혜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성모님께 간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미 받으소서 241)

* + 본문을 다시 읽고 성령께 모든 피조물 속에서 성부의 사랑의 자취를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우리의 공동의 집을 지키고 건설하기 위하여 작은 행동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당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마리아의 모태에서 형성되었고, 이 땅의 일부가 되셨으며,**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당신은 부활의 영광으로 모든 피조물 안에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찬미합니다.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8일: 9월 1일 토요일**

**폭력에 고통 받는 여인들의 어머니 마리아**

**도입**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 폭력, 여성 폭력,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 매매, 강제 매춘, 무력 분쟁 상황에서 살해 된 사람과 같은 폭력, 체계적인 폭력, 성 노예와 강제 임신 등 여러 형태로 드러난다. 명예 훼손에 의한 살해, 지참금으로 인한 폭력, 여성의 영아 살해 및 남아 성 선택에 의한 살해, 남성 생식기 혹은 여성 생식기 절단 및 기타 유해한 관행 및 전통 등이 포함된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여성의 삼분의 일이 (35%) 신체적 혹은 성적 폭력으로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70%에 육박한다. 국제 기구는 여성을 향한 폭력은 차별의 결과로 법정에서 그리고 실제 생활에서 겪는 불평등의 지속으로 고통을 겪는 인권에 대한 폭력이라고 규정한다.

**시작 기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기를 원하신 주님, 죽음에 내 몰린 간음한 여인을 보호하신 주님, 폭력과 전쟁의 희생자인 여성들, 하느님의 미소인 평화의 여성들, 매춘 여성들과 성폭력의 희생자인 여성들, 아름답고 조화로움의 창조자인 여성들, 자원해서 혹은 강제로 낙태를 하는 여성들, 장래의 세상으로 생명과 신앙을 가져가는 여성들, 종교와 관습 혹은 잘못된 교리의 신봉으로 억압받는 여성들, 역사를 형성하는 예언자인 여성, 가난한 여성과 실업자인 여성, 받아들이고 나누는 여성, 연로하고 혼자 살며 병들고 잊혀진 여성, 내일을 기약하는 어린 여아와 청소년기 소녀들, 모든 종족과 민족과 나라의 여성, 마리아의 여정에 함께하는 알려진 여성, 수 백만 여성들의 마음 속에 숨겨 있거나 아우성 치는 모든 희망을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아멘.

**성령청원 기도**

**성경 독서**

”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만들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바리사이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사실은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다시 갈릴래아로 가셨다. 그때에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셔야 했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 4, 1-10)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특별히 성 베드로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 집에서 여러분은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 여러분이 준비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당에서 여러분의 몫은 훌륭하고 좋은 어머니처럼, 어머니들의 것과 꼭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모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영혼들에게 효과있는 사람이 되고 본당 사제들에게 유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PrP I, 1948, p. 99-100)

**프란체스코 교황**

“배척과 부당한 대우와 폭력의 상황에 시달리는 여성들은 흔히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지 못하기에 이중으로 가난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자기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놀라운 영웅적인 모범을 끊임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212)

“인정하고 감사하십시오.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메리카 대륙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여성 살해와 같은 상처에 맞서 싸우라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벽을 넘어 침묵 속에 유지되는 폭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형태의 폭력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문화를 요구함으로써 이 고통의 근원에 맞서 싸울 것을 요청합니다.”

(페루, 트루힐로 아르메 광장에서,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 +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자문해봅시다. 폭력을 당한 많은 여성들이 하느님께 대한 희망과 신뢰를 잃지 않고 한 증언은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 그리고 우리 수도회에 무엇을 요청하는가?**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하느님, 여성들을 억압하는 많은 사람들의 딱딱한 마음을 자유롭게 해 주시고, 힘들게 지켜주시며, 살기 위해 투쟁하는 많은 여인을 계속 세워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그들이 당신의 숨결을 느끼고 당신께서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도록 손을 뻗어 그들 각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니 감사 드립니다. 여성의 존엄성을 위하여 저희에게 명료하게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겸손하고 용감한 믿음으로 가득 찬 여인이며 신부요 좋은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그들을 동반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세세 대대 다스리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9일: 9월 2일 주일**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복음화 하는 사람**

**도입**

**“성령으로 충만한 복음 선포자는 기도하며 일하는 복음 선포자입니다. 복음화의 관점에서 보면, 확고한 사회적 선교적 투신이 없는 신비적 제안들은 복음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영성이 없는 사회적 또는 사목적 담론들과 관행들도 복음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이고 불완전한 제안들은 복음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몇몇 작은 단체들에게만 가고 그 이상 퍼져 나갈 힘이 없습니다. 투신과 활동에 그리스도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내적인 공간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의 기쁨, **262)**

**시작 기도**

침묵의 여인, 기도의 여인, 의무에 충실한 여인인 마리아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당신의 아들 선한 목자께서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라.”라며 보내신 새로운 도전들에 우리를 개방하는 모든 계획들인 우리 수도회의 새로운 사명의 도약의 여정을 맡겨드립니다. 저희에게 선교 임무에 대담하고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청원**

**성경 독서**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3-14)

**복자 알베리오네의 설교에서**

첫 번째 빠스또렐라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키운 마리아이셨습니다. 사생활과 공생활 동안,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때 그리고 부활 때에 목자 예수님을 동반하셨습니다. 그리고 초기의 목자들과 사도들을 동반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던 이층방에서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며 기도를 인도하였습니다. 마리아께서 지지해 주시고, 마리아께서 사도들, 사도들을 동반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목적 사명이 마리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신비가 있습니다.”(AAP 1965, 179-180)

**프란체스코 교황**

“교회의 복음화 활동에는 마리아 ‘방식’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온유한 사랑의 혁명이 지닌 힘을 믿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겸손과 온유가 나약한 이들의 덕이 아니라 강한 이들의 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려고 다른 이를 홀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루카1,52)”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루카1,53)하느님을 찬양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바로 그분께서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에게 따스한 온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복음의 기쁨 288)

* + 성령께서 선교를 위한 불을 우리 안에 새롭게 타오르게 해 주시도록 개방하자. **나를 초대하는 변두리는 어디인가? 수도회의 선교 계획과 교회의 선교 계획에 어떻게 함께 하는가?**

(개인 숙고)

(자유기도)

**기도**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수도자들을 증가시키시어, 그들이 세상을 비추는 빛, 참된 신심의 스승, 하느님 곁에서 전구하는 이들이 되게 하소서. 보속, 기도, 애덕과 사도직 활동으로 가난한 사람ㄷㄹ을 돕고 형제들을 인도하여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수도서원에 충실하고 나날이 진보하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성인들의 어머니요, 수도자들의 모후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의 성화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하늘 나라에서 당신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께 드리는 코론치나 4번)

**우리의 목자이며 선한 목자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9일기도를 준비하는데 협력 해 주신 칠레-페루-쿠바 위임구의 수녀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18년 8월, sjbp총원, 로마